

시로 읽는 성보순례

국보 제9호 부여정림사지오층석탑



적막, 먹빛으로 번지다

이재무

부소산에 돌아가는

강물처럼 더운 몸 식히고

담돌이하며 천년 묵언 듣는다

흐르는 물 소리처럼 울게 한,

마음의 냇가 솟은 돌들의

뼈아픈 시간들을

담신 흘러내려온 그늘에 담근다

항아리 속

오래 묵힌 간장 같은

적막, 먹빛으로 번진다

〈국보사랑 시집-불멸이여 순결한 가슴이여〉중에서

이재무 시인은... 충남 부여 출생. 1983년 <실천문학>으로 등단. 시집 <온다던 사람 오지 않고> <푸른 고집> 등.

분반좌의 도리를 아는가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

흥화존장(興化存獎) 선사에게 어떤 남자가 물었습니다. “다자탑 앞에서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이에 선사가 대답했습니다. “한 사람이 거짓을 전하면 만 사람이 진실을 전하느니라.”

선불후불(先佛後佛)이 심인(心印)을 전하는 것은 말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이심전심(以心傳心) 즉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니 이것이 우리 선종의 전통요용입니다. 정법상전(正法相傳)이 마음에서 마음으로 하는 것은 오직 선가(禪家)에서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서산정허 선사는 <선가귀감>에서 “세존께서 삼처 전심한 것이 선지(禪旨)가 되었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분좌(分座)는 법좌를 반씩 나누어 앉는다는 말입니다. 이는 뒷날 많은 선사들에 의하여 반분좌로 이어집니다. 특히 대해종고 선사가 경산(徑山)에 주석했을 때, 동림도안(東林道顔) 선사가 뒤따라

와서 배알하고 아침저녁으로 질의 응답한 끝에 비로소 종지(宗旨)와 계합하여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대해선사와 법좌를 반으로 나누게 되었던 것입니다. 종지가 면면히 끊어지지 않고 오늘에 이르도록 전해오는 결국 알고 보면 분반좌인 것입니다. 동안거 90일 동안 열심히 제대로 정진한 남자는 해제 후 만행길에서 분반좌에 조금도 망설임 없는 선지식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분반좌가 없었다면 공부가 모자람을 스스로 알아차리고서 더욱 용맹심을 내어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月來松色寒 雲去青山露

달이 뜨니 솔빛이 싸늘하고 구름 걷히니 푸른 산이 드러나네.

수행인 ‘진실된 사고’ 가져야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수행하는 사람들이 모인 총림(叢林)은 종합수도장으로 결제와 해제가 따로 없는 곳입니다. 기왕에 해제라 이름 붙였으니 산승이 해제 대중에게 몇 가지 당부하고자 합니다.

탐진치(貪瞋癡) 삼독(三毒)으로 인한 무명 업식 때문에 온갖 번뇌망상이 나타나 현실에서 너와 나라는 존재현상으로 인한 분별의 인식 경계도 허물기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인식의 분별은 주체와 객체로 나눌 수 있으며, 주체에서 본 객체는 현실에 대한 문제입니다. 너와 나라는 존재는 주체로부터 분리된 객체로서의 존재이며, 현상은 주체가 인식한 객체이며, 또 우리의 존재는 현상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현상경계가 허물어져 자유로울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수행인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진실된 사고입니다. 진실은 순수와 청정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상적 사실과의 관계에서도 ‘진실’은 반드시 ‘사실’에 입각해야 하겠지만, ‘진실’은 자체가 진리

이므로 만법이 귀일하듯이, 주체와 객체가 합일되고 너와 내가 하나가 될 때 영원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관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인식 대상과 현상이 순수하고 요할 때 반드시 시공을 초월한 경계가 나타나게 된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정진해 나아가기 바랍니다.



菩提本清淨 起心即是妄 對境即千差 無心一境閑

보리는 본래 맑고 깨끗한데, 마음을 일으키면 곧 이것이 망령됨이라. 경계를 대함은 곧 천 가지로 다르나 무심한 한 경계가 한가롭도다.

“윤회고 다해야 해제”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

오늘은 임진년(壬辰年) 해제일이며 또 포살법회이기도 하다. 어떤 것이 진정한 해제이고 어떤 것이 진정한 포살인가?

정진하여 삼세육추(三細六麤)가 모두 떨어져 윤회고(輪回苦)가 영원히 다한 것이 진정한 해제이며, 포살(布施)을 받지 않는 마음이 진정으로 포살을 잘 받는 것이다. 부처님의 계를 받는다는 것은 자성정정심(自性正淨心)을 확철대오하여 수용자재(受用自在)함에 있는 것이지 언어문자로 표현된 계의 이름에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십중대계(十重大戒)라든가, 사바라이(四波羅夷), 사십팔경구계(四十八輕句戒)라는 이름에 따라 갈 것 같으면 부처님의 계를 잘 모르는 것이다.

자성정정(自性正淨)한 자리에서는 부처도 그 곳에 머물지 못하고 중생도 그 곳에 머물지 못하여 일체가 머물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청정하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성정정계(自性正淨戒)며, 무작계(無作戒)며, 무위계(無爲戒)며, 심지계(心地戒)이다.

山自青水自綠 清風拂白雲歸 盡日遊盤石上 我捨世更何希 물도 푸르고 산도 푸른데 맑은 바람 백운을 쓸어가누나 종일 반석에 앉아 선정삼매에 노나니 내가 세상의 온갖 번거로움을 버렸는데 또다시 무엇을 구하겠는가.



“해제는 다시 조이는 것”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원명 스님

參禪切莫用人情 用人情道不成 直得一番寒徹骨 豈將飢饉作鐘鳴

공부하려한다면 간절히 인정을 내지 말라. 인정을 낸다면 도를 이루지 못하리라.

오직 곁에 사무치는 추위를 견어봐야 하겨늘 어찌 옹기 소리를 종소리라고 우기려 하는가.

무엇을 이루려고 뜻을 세운 사람은 냉철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어느 때는 살을 도려내는 고통도 감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떠한 일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모진 바람과 서리를 견뎌내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매화를 가까이 하고 좋아하는 이유는 그 풍상을 이겨낸 절개 때문입니다. 만약 자신에게 인정을 베풀기 시작하면 이미 수행과는 요원해 집니다.

오로지 ‘이 빛 고?’ 라고 간절하게 다져 나가십시오. 해제는 푸는 것이 아니라 다시 조여서 느슨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스스로를 다져서 백적 간두에서 한 걸음 더 내딛기 바랍니다.

宿昔青雲志 蹉跎白髮年 誰知明鏡裏 形影自相憐 옛 적에 품었던 청운의 뜻이여! 아차 하는 새 어느 덧 백발이 되었네. 누가 알았겠는가! 거울 속의 얼굴을 보고 안타까워할 줄은.



“밥도독은 면하였습니까”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수산 스님

오늘 삼동안거가 끝나는 날 해제 대중에게 이르노니 밥도독은 면하였습니까. 지난 90일 동안 밥값을 숫자로 션을 하자면 그 무게가 한없을 것입니다.

이제 밥값을 셈해서 받아야겠습니다. 해제대중은 밥값을 계산해서 이 산승에게 가져 오십시오. 밥값을 가져오는 사람이 없거늘 스스로 송(頌)하여 가로되

賊身已現 變主才怒 却彼白拈重踏故 灘踪人兮受罪汚 拷着痴頑不通路 翻身掘地盡生理 兒孫俱喪何人顧 杳然失了賊來路

도독의 몸이 드러나니 주인으로 변하여 화를 내고

날 도독을 맞았다가 거둬 밟으니 순라가 되었다가 죄를 뒤집어 쓰네. 고로 씩은 듯 어리석고 완악해 통하지 않아 몸을 뒤집어 땅을 파서 생매장 해야겠다.

그 자손들 누가 돌볼꼬 도독이 오면 길을 까마득이 잊었도다.



법어 전문은 인터넷 현불뉴스에 있습니다.

범어사 산중총회는 법정 기한 내 여법하게 치러져야 합니다

귀의삼보 하옵고,

작금의 범어사로 인해 불교계가 겪고 있는 아픔과 위상추락에 대해 할절신체의 마음으로 참회를 올립니다.

사건이 보도된 이후 소납은 문도의 일원으로써 안타까움과 책임을 통감하고 범어사 중진들을 만나 먼저 진실한 참회를 통해 실추된 종단의 명예와 본사의 청정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간청했습니다.

지난 2월 1일 종단은 긴급회의를 개최해서 선거제도의 혁신 등 대책을 강구했으며, 범어사도 곧 운영회의를 열어 관련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범어사는 이 아픔을 기억하고 의식의 변화와 제도개선을 통해 거듭 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제26대 범어사 주지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는 여법하게 진행되어 안정과 화합 그리고 유신

의 큰 계기로 삼아야 함을 주장합니다. 산중총회가 여법하게 진행되지 못한다면 분규가 지속되는 양상으로 발전될 소지가 다분하며, 화합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선거가 파행으로 진행된다면 선거권이 있는 400여명 대중의 중헌 중법상 권리 또한 훼손당합니다. 무엇보다 ‘선찰대본산 범어사’가 법정 기일 내 선거가 치러지지 못하고 ‘사고사찰’로 될 시 불교계는 물론, 불심의 도시 부산불교의 위상이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받게 될 것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사기를 잃고 자괴감과 더불어 한없는 우려와 의혹 속에 현 상황을 바라보는 조용한 다수의 범어대중들이 있습니다.

부디 금번 범어사의 산중총회가 자숙의 자세와 참회를 바탕으로 법정기한 내 여법하게 치러져서 빠른 안정과 명예회복, 청정가풍을 면면이 이어가도록 범어사 자체의 뼈를 깎는 노력과 제방 대덕의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

불기 2556(2012)년 2월 3일

범어문도 범응 외 합장